

전북 "틀림없이 우승" vs 서울 "기회 있을 것"

한국프로축구연맹, 상위 스플릿 진출 목표 달성 6개팀 그룹A 미디어데이 개최... 경기는 15일 부터

33번의 레이스를 통해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6개팀 사령탑들이 남은 일정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스플릿 라운드 그룹A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승점 60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은 K리그 3연패를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최 감독은 "선수들과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우승을 목표로 준비했다. 상위 스플릿의 남은 5경기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왔던대로 준비한다면 분위기가 좋기에 우승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전북은 33경기에서 18승15무를 챙겼다. 정상작이라면 승점 69가 맞지만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로 인한 승점 삭감으로 2위 FC서울에 3점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에 최 감독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승점이 깎였지만 오히려 선수들에게 자극이 된다"면서 "절대적으로 선수들을 믿고 상위 스플릿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서울의 황선홍 감독은 역전 우승의 희망을 불렀다.

황 감독은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력을 다져 상위 스플릿을 치르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교롭게도 서울과 전북은 시즌 최종전에서 서로를 상대한다. 전북의 부진과 서울의 결집다면 이 경기를 통해 트로피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황 감독은 "전북이라는 좋은 팀을 다른 팀들이 최선을 다해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기가 결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을 포함한 3개 대회를 병행 중인 황 감독은 "지금도 계산을 엄청나게 두드리고 있다"며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40)의 조성환 감독은 3위 수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상위 스플릿 3위까지는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진다.

조 감독은 "작년 연말 시상식 때 우승하면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님처럼 '팬티 세레머니'를 하기로 했다.

4위 울산 현대(승점 48) 윤정환 감독은 "1차 목표는 달성했다. '지금은 제주에 밀려있지만 다시 노력하겠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에 오른 5위 전남 드래곤즈(승점 43)의 노상래 감독과 6위 상주 상무(승점 42)의 조진호 감독은 복병을 자청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스플릿 라운드 그룹A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이 트로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상래 전남 드래곤즈 감독(왼쪽부터), 조성환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 황선홍 FC서울 감독, 윤정환 울산 현대 감독, 조진호 상주 상무 감독.

노 감독은 "우리가 만만치 않다. 매경기 최선을 다해서 박진감 넘치는 공격 축구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스플릿 라운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38번째 경기 끝난 뒤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상위 그룹 1위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는다. 상금은 5억원.

하위 그룹 12위팀은 챌린지로 자동 강등된다.

11위팀은 K리그 챌린지 최종 2위와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김민근기자

군산상고 야구부,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야구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상고는 12일 오전 북일고등학교 야구장에서 펼쳐진 결승전에서 충북 세광고를 7대5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군산상고는 2013년 전국체전 우승 이후 4년만의 정상탈환과 함께 7회 우승으로 야구 명문고로서의 명성을 또 한 번 쌓았다.

군산상고는 NC다이노스 입단 예정인 에이스 김영중(3년) 선수를 선발해 마운드를 점령하며, 7회초 4득점을 하며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했다.

석수철 지도감독은 "올 시즌 봉황대기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학부모, 학교, 야구협회, 동문, 일구회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전인지, LPGA투어 신인왕 수상 확정

'덤보' 전인지(22·하이트 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시즌 신인왕 등극을 확정했다.

LPGA는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인지가 남은 6개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올 시즌 신인왕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전인지는 신인왕 포인트 1223점을 얻어 2위 메간 칸(미국·445점)에 778점이나 앞서있다. 잔여 대회에서 메간 칸이 선전을 거듭해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전인지는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시즌 개막 전 목표 중 하나가 신인왕 수상이었는데 엄청난 영예를 얻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한국 선수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전인지가 10번째다. 1998년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처음 영예를 안았고 지난해에는 김세영(23·미래셋)이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됐다.

전인지는 지난해 LPGA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김민근기자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 이란에 저 3위로 밀려

유효슈팅 1개도 기록못해... 42년 테헤란 무승징크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중동의 강호 이란에 패하면서 참담한 행보를 예고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유효슈팅을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 끝에 0-1로 패했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첫 패를 당한 한국은 2승1무1패(승점 7)가 되면서 3위로 내려갔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카타르가 시리아를 1-0으로 제압한 덕에 4위까지 추락하진 않았다.

시리아가 1승1무2패(승점 4)로 4위, 카타르(1승3패 승점 3)가 5위다.

가오홍보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자진 사퇴한 중국은 1무3패(승점 1)의 저조한 성적 속에서 최하위로 미끄러졌다.

월드컵 본선은 조 2위까지 직행할 수 있

다.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이란(3승1무 승점 10)은 조 1위를 유지했고, 앞서 중국을 2-0으로 제압한 우즈베키스탄(3승 패 승점 9)이 2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이란 원정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국은 원정 첫 승과 함께 본선 청신호를 기대했지만 42년 무승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역대 7차례 원정에서 2무5패를 기록해왔다. 상대전적도 9승7무13패로 더 벌어졌다.

최근 언론을 향해 빈번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슈틸리케 감독은 저조한 경기력과 기대이하 결과로 입지가 불안해졌다.

이날 한국의 슈팅은 단 1개였다.

유효슈팅은 없었다.

지난 6일 카타르와의 3차전에서 맹활약했던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전반적인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선취점을 내준 대한민국 선수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로 끌려가는 양상 속에서 고전했다. 대로 5차전을 갖는다.

한국은 다음달 15일 우즈베키스탄을 상

/김민근기자

방탄소년단 '윙스' 미국 아이튠스 톱앨범차트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2집 '윙스(WINGS)'로 잇따라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윙스'는 지난 11일(한국 시간) 기준 발표된 미국 아이튠스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K팝 가수 중 이 차트에서 정규 앨범(Full Length)으로 1위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빅히트는 "그 동안 미국 아이튠스 차트에서 국내 아티스트가 K팝 장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한 경우는 있었다"며 "하지만 전체 앨범을 대상으로 하는 톱 앨범 차트에서 K-POP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자랑했다.

미국 현지 유력 음악 미디어에서 방탄소년단을 조명하기도 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피 땀 눈물' 발표하며 새로운 경지로 날아오르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 정규 2집을 통해 멤버들이 각자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성장을 보여준과 동시에 전세계에 K팝의 높은 인기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썼다.

한편 '윙스'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째인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